

#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적게 넣고  
덜 짜게 먹으면!  
노출증, 고혈압,  
위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  
1.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2.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원서울 하지 않는다.  
4.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5.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술, 담배) 끊고! (소금, 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  
「건강한 부산만들기」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문의 : 부산광역시청 건강증진과(888-3312~5), 16개 구·군보건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체육 2018 09+10 vol 15호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체육**  
2018 vol.15 09+10



03

05

17



12

## 부산체육

부산체육 2018 09+10 통권15호

발 행 일 2018년 10월 05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5호)

발 행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 집 인 김동준 편집·취재 최유식, 최상우, 김성무, 하나근

발 행 처 부산광역시체육회(T.051-500-7900 F.051-505-6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디 자 인 대훈기획(T.051-898-0330)

### 사람과 사람

- 02 파워 인터뷰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
- 04 파워 인터뷰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김영일 회장
- 06 이달의 칼럼 언론사 기자(권상국 부산일보 스포츠부 기자)

### 이달의 이슈

- 08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스포츠 속으로

- 1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 부산의 스포츠 소식

- 14 2018 생활체육지도자교육
- 16 오거돈 회장, 부산체육고 격려 방문
- 18 제1회 초등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 대회
- 20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 송춘열 회장
- 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 및 부산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
- 24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6차 이사회
- 26 더 이스트 창단식
- 27 2018 부산·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
- 28 아시아경기대회 입장선수단 격려회
- 29 송미현 사무처장 퇴임 기념식
- 30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32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34 구군체육회 소식
- 47 회원종목단체 소식
- 50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스포츠 뉴스

- 52 건강소식
- 54 행복나눔 은퇴선수단체 여름캠프 개최
- 55 코리아하우스에서 스포츠 외교의 장 '한국의 밤' 개최  
제11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 56 「2018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 태릉선수촌에서 개최
- 57 대한체육회,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9곳 선정

### 이달의 스포츠

- 58 2018 아시아의 중심에서 펜싱 코리아 FENCING KOREA를 외치다

### 문화 속으로

- 63 펜싱 영화

# 화합과 통합으로 부산스포츠를 알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

66

체육의 영역을 메달의 경쟁을 넘어,  
스포츠 복지를 통해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넓히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금) 취임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신임 김동준 사무처장이 밝힌 포부다. 이를 위해 그는 “체육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모셔서 부산 체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싱크탱크인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생산할 계획이며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서도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부산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생활체육·전문체육을 총괄하는 실무 기구다. 예산은 연간 300억 원이 넘는다. 김동준 사무처장은 “이제는 전문체육 발전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체육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대한체육회를 출범시켜 선진국형 체육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생활체육을 통해 국가대표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투 트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전국체육대회 부산 유치 계획

신임 김동준 사무처장이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3년 전국체육대회 부산 유치다. 그는 이미 유치 준비를 마치고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경남 김해시가 유치 의사를 밝히고 조직위원회를 꾸린 상태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체육은 2000년 전국체육대회와 2002 부산AG을 통해 많은 성장을 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 또한 부산시와 회원 종목단체의 단합된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한 김동준 사무처장은 끝으로 “체육이 부산시민의 건강, 사회적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전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History

- 1980. 02. 19.~2017. 06. 30.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재직  
- 총무과장, 운영부장, 총무부장, 총괄부장, 사무처장 역임
- 1988. 04. 01.~1988. 10. 3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근무  
- 부산운영본부 후생담당관
- 1994. 02. 08.~1995. 12. 31.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부산유치위원회 근무  
- 총무부장
- 2000. 11. 22.~2002. 02. 22.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근무  
- 비서실장, 경기2부장, 경기담당보좌관
- 2009. 04. 20.  
부산광역시 창의시정연구위원회 체육분과위원 피촉
- 2016. 08. 19.  
세계비치사커볼대회조직위원회 집행위원 피촉(현)
- 2017. 03. 15.  
대한체육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위원 피촉(현)
- 2018. 08. 24.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취임



# 근대5종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김영일 회장



지난 7월 초, 부산 근대5종연맹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김영일 회장. 오랜 기간 연맹에 몸담아온 그는 부회장을 맡은 데 이어 1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취임 직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회장은 “사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참가선수 격려 행사가 있었는데, 그 때 김세희(부산체육회) 선수를 만나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제 기를 받았는지 김세희 선수가 마지막 날 육상과 사격에서 월등한 성적을 내어 은메달을 땄어요. 정말 기쁘고, 곧 다가올 전국체육대회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스포츠의 뿌리가 되는 주요 종목인 근대5종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김영일 회장. 1983년 MBC기자로 입사한 그는 1988년 스포츠부에 파견되어 1985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민국 체육 융성기에 활동을 했다. “당시 여러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취재하면서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졌죠. 매일 스포츠와 함께하면서 오히려 비인기종목에 관심이 가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선수들이 기초 종목인 육상, 수영이나 ‘귀족 스포츠’로 인식된 펜싱, 승마에는 약했다. 그래서 더욱 근대5종 경기에 관심이 갔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 5종목을 모두 소화하는 만능 스포츠인들의 경기, 근대5종

근대5종은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등 전혀 다른 5종류의 스포츠를 조합한 종합 종목이다. 이는 전쟁 중 군령을 전하기 위하여 적진을 돌파한 나폴레옹 부하의 영웅심을 기리기 위해 시작한 것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근대올림픽 대회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의 영향으로 1912년 스ток홀름 올림픽대회에서 탄생했으며, 이는 쿠베르탱이 생각하는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종목이었다. 근대5종은 경기의 짜임새가 전령병의 고투를 말해주는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군인의 친선대회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제로 경기는 1일 동안 펜싱, 수영, 승마, 복합(사격+육상) 경기 등 5개 종목을 순서대로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록을 근대5종 점수로 바꾸었을 때 총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한다.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복합경기는 3종목 종합성적의 순위가 높은 순서로 출발하게 된다.

##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선 꿈나무가 중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세희 선수를 비롯해 문주성, 이민서(부산체고) 선수 등 젊은 유망주들이 있어 부산의 근대5종은 미래가 밝다. 그러나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5개 종목을 고르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

은 물론, 기초 종목 육성에 대한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의 인식 변화도 크게 요구된다. 부산 지역 향토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역시 근대5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김영일 회장은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어린 꿈나무들부터 키워야 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육상과 수영만 하는 근대2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영도의 중리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선생님께 좋은 선수 배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어요. 중리초등학교가 체육중학교와 가까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영을 가르치기에 적격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한둘밖에 없는 요즘,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학교 학생들 가운데 운동에 소질이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육 중·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체계적으로 육성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김 회장의 바람이다.

##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시점

어느덧 취임 석 달째, 근대5종 활성화를 위해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일 회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그는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한다. 선수와 지도자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부산 근대5종 선수들은 종목별 선수들이 훈련을 진행한 후에야 짧게 훈련할 수 있어요. 승마는 아예 훈련 시설이 없어서 경북 문경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잘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

근대5종의 저변 확대와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맹의 단합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회장은 “사람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우리 조직에는 바뀐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껏 일한 분들과 함께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함께 가는 것만이 부산의 근대5종, 나아가 부산 체육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소수의 인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김영일 회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 한국체육 이제는 스토리다



권상국  
부산일보  
스포츠부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가 대한민국 체육계에 색다른 경험을 안기며 막을 내렸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 2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 자리를 일본에 내줬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이 시끄러울만한 이슈다. 그러나 체육계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딱히 심각하게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예전과 달리 한국이 2위 자리를 지켰든, 3위 자리로 내려앉았든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유인즉슨, 아시아경기대회로 대표되는 국제대회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TV 채널에 스포츠 전문 채널만 몇 개인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돌려도 EPL, NBA, LPGA 등 세계 정상급 프로 선수가 펼치는 기교의 향연이 펼쳐진다. 위성중계가 어렵던 과거에야 한국 중계진이 현장에 나가 있던 아시아경기대회는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최상급 스포츠 경연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권 선수끼리 펼치는 승부의 장 그 이상은 결코 아니다.

## ● 이제 성적이 아니라 ‘스토리’에 집중할 때

국제대회 성적이 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체육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바로 ‘스토리’다. 이번 대회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종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곱씹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가시밭길을 헤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축구대표팀의 낭보는 물론 화제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승전보에 한국인들이 열광했다. 아시아 최약체로 취급받다 담금질을 거듭해 동메달을 거머쥔 ‘쌀딩크’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의 스토리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것이다.

한국 선수단의 메달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이 단일팀을 이룬 여자 농구에도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남북한 선수가 서로 부족한 포지션을 메워 ‘만리장성’ 중국의 아성에 도전한 스토리는 술한 후속 기사를 양산했다. 이들이 은메달에 그쳤지만 탈아시아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북한의 포워드 로숙영에 쏟아진 관심은 대단했다.

반면, 리그까지 중단하며 프로선수로 대표팀을 꾸려 금메달을 따낸 야구대표팀에 대한 여론은 어땠나. 금메달에 대한 칭송이 쏟아졌을까? 정반대였다. 천문학적인 몸값의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팀과 맞붙는다는 비아냥 속에 병역 면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급기야는 정운찬 KBO 총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는 지경까지 이어졌다. 베트남 축구와 여자농구 단일팀, 그리고 한국 야구대표팀, 이들이 엮어낸 ‘스토리의 차이’가 여론을 가른 셈이다.

## ● 올곧게 훌린 땀방울로 평가돼야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하는 성적 지상주의는 프로 스포츠로 충분하다는 게 2018년 스포츠 팬심이다. 대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온 선수라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어떤 스토리를 엮어내느냐에 관심이 쏟아진다.

이는 한국체육이 메달 수에 연연해 새로운 실험과 세대교체를 두려워 말라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하다. 누가 몇 개의 금메달을 가져왔는지, 몇 위에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선수가 역경을 딛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어떤 선수가 값진 땀방울 끝에 아성을 무너뜨렸는지가 현장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해단식에서도 ‘수영 박태환, 배드민턴 이용대, 역도 장미란 등 유명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식상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제는 더는 쫓기는 마음으로 무대에 설 필요도 없고, 서서도 안 된다. 경기부터 후배 관리까지 누구도 믿지 못해 10년째 ‘여제’ 김연경만 애태게 찾아대는 여자 배구의 슬픈 현실은 막을 내려야 한다.

바르고 올곧게 훌린 땀과 스토리만으로도 성적과 상관없이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성적 부담을 털고 스토리에 집중할 때 한국체육은 진정 새로운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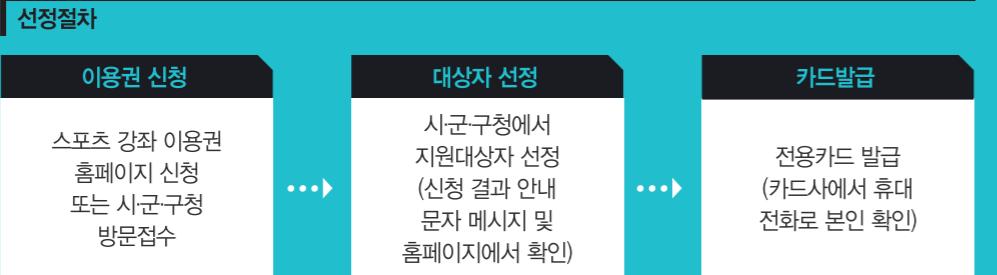
## 국민의 희망 키우고 건강 지키는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스포츠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기구 및 차상위가구 만5세부터 18세의 유·청소년과 경찰청이 추천한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연초에 수혜자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
| 우선선정(전국 총 1,000여 명) | 제한 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 2순위                 |              |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 4순위                 |              |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결제카드를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아 거주 지역 스포츠 강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결제는 스포츠 강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도 가능해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 강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천900여 개의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이용 희망자는 전국 동시 신청기간인 오는 12월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http://svoucher.kspo.or.kr>)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단 메뉴에서 [개인 이용권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 신청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리스트에 신청지역이 나타납니다.
- 현재 신청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 가능한 지역은 [이용권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며, [이용권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수급자격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이 신청인과 다를 경우 수급자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수급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 고유식별 정보처리, 제3자 정보제공,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승인 및 준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동의]에 체크하세요.
- 약관 내용에 모두 동의 하셨으면 [동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용권신청 방법

## 4단계 법정 대리인 동의 및 수급자격 확인

-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만 14세 미만 동의]를 선택하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만 14세 이상 동의]를 선택 합니다.
-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수급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수급자격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이 신청인과 다를 경우 수급자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수급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용권 신청서 보기를 클릭하세요.

## 5단계 신청서 상세정보 등록

- 신청서의 상세 내용을 입력하세요.
- 알림톡(문자) 수신 여부를 선택하세요. 알림톡(문자) 비수신을 선택할 경우 알림톡(문자)이 오지 않습니다.
-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입력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 6단계 신청서 제출 완료

- 신청서 등록이 완료되면 완료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신청서를 변경 또는 내역을 확인 하시려면 [이용권 신청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용권 신청서 내용 확인 및 수정/삭제를 하시려면 [이용권 신청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이용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세요.

4년 뒤를 기약하며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성료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 이렇게 한국 선수단은 메달순위 3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금메달 65개 이상으로 메달순위 2위를 노리겠다는 당초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중국이 금 132개, 은 92개, 동 65개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금 75개, 은 56개, 동 74개로 2위에 올랐다. 한국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50개 이하로 획득한 것은 1982 뉴델리 대회(금 28개) 이후 36년 만이다. 1994 히로시마 대회에서 일본에 메달순위 2위 자리를 내준 뒤, 5회 연속 중국에 이어 메달순위 2위를 지켜왔던 것이다.

## 한국 금49, 은58, 동70로 메달순위 3위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가 16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1962년 이후 56년 만에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아시아의 힘(Energy of Asia)'을 슬로건으로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40개 종목에서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사진제공 대한체육회



## 양궁, 사격 등 믿었던 효자종목의 부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효자 종목의 부진이다. 세계 최강 양궁은 가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겼다. 2014 인천 대회에서 한국 양궁은 금 5개, 은 3개, 동 1개를 따냈는데 이번 대회에선 금 4개, 은 3개, 동 1개로 마쳤다. 인천 대회에서 금 8개, 은 11개, 동 8개를 기록했던 사격도 금 3개, 은 4개, 동 5개로 부진했다. 승마는 4년 전 금 4개, 은 1개, 동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지만, 이번 대회에선 '노 골드'로 마감했다.

기초 종목 또한 여전히 부실해 육상과 수영에 각각 걸린 금메달 48개와 41개 중 겨우 한 개씩만 건지는 데 그쳤다.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2020 도쿄 올림픽대회를 준비 중인 일본의 강세도 한국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육상(금 6개)과 수영(금 19개)은 물론이고 남녀 하키 등 이전엔 한 번도 금메달을 얻지 못했던 종목까지 금메달을 수확했다.

## 세계 NO.1 '펜싱', 새로운 메달밭 '사이클'

반면, 여전히 위용을 과시한 펜싱과 유도, 그리고 새로운 효자종목으로 떠오른 사이클 등도 있었다. 한국 펜싱은 세계 수준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펜싱대표팀은 금 6개, 은 3개, 동 6개를 기록했다. 남자 사브르 구본길, 여자 에페 강영미, 여자 플뢰레 전희숙 등이 개인전에서 '금빛 찌르기'에 성공했다. 펜싱 남자 플뢰레는 24년 만에 아시아경기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펜싱 여자 사브르도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리우 올림픽대회에서 은 2개, 동 1개에 그쳤던 유도는 금 4개, 은 7개, 동 3개를 따내



며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사이클의 약진 또한 눈부셨다. 이번 대회에서 트랙과 로드를 합해 금 6개, 은 3개, 동 4개를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 한국의 최고 스타 나아름(상주시청)이 한국 사이클의 금빛 질주를 이끌었다. 나아름은 개인 도로를 시작으로 도로 독주에선 2연패에 성공 하더니 트랙 종목에서도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4관왕에 올라섰다. 또한 새로 정식종목이 된 주짓수,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종목 다변화 차원에서 작은 성과를 얻었다.

### 코리아의 저력, 남북 단일팀 사상 첫 금

무엇보다 이번 대회 가장 큰 소득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국제종합대회 사상 두 번째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 ‘코리아’는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최초로 합작하는 성과를 냈다. 카누 용선 여자 단체 500m에서 금메달, 여자 농구 단일팀은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했다. 카누 용선 200m와 남자 단체 1000m에선 동메달이 나왔다. 코리아의 메달은 남측도 북측도 아닌 제3국의 메달로 집계됐다.



### 남자 축구·야구 나란히 일본 상대로 금메달

또한, 온 국민의 바람대로 남자 축구와 야구는 나란히 일본을 상대로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끈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사상 첫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조현우(대구FC) 등은 군 면제 혜택을 입고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의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2로 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1위인 말레이시아는 당초 FIFA 57위인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한층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16강에서 숙적 이란,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난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을 만나 3-1 승리를 거뒀다.

선동열 감독이 이끈 한국야구는 일본과의 결승에서 좌완 에이스 양현종(KIA 타이거즈)의 호투와 박병호(넥센 히어로즈)의 쐐기포에 힘입어 3-0으로 이겼다. 박병호는 4경기 연속 홈런을 뽑아내며 대표팀 4번 타자의 위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20년 만에 결승에서 만나 일본을 넘은 한국은 사상 첫 아시아경기대회 야구 3연패의 역사를 썼다.

### 부산 선수단, 메달 21개 획득

부산 선수단은 21개 종목에 75명이 참가, 15개 종목에서 32명이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은메달을 품에 안은 카바디(남자)는 모두가 부산 소속 선수들로 구성됐다. 볼링의 구성회(금1, 동1, 부산시청 소속), 수영의 우하람(은2, 동2,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관왕을 차지했고, 부산환경공단 소속 선수가 대부분인 세팍타크로의 메달(은1, 동1)도 값진 성과를 얻었다.

### 한국 스포츠에 안긴 과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스포츠는 스포츠 경쟁력 제고라는 큰 숙제를 안았다. 메달 획득에 올인하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 심주의’의 한계를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전통적인 메달 강세 종목들이 주춤했고, 이른바 비인기 종목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기초종목으로 분류되는 육상과 수영에서 금메달 1개씩을 추가했지만 중국과 일본에 크게 밀렸다. 가능성 있는 소수의 선수에게 자원을 집중해 메달을 노리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0 도쿄 올림픽대회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우리의 강세 종목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됐다. 꾸준한 투자와 지원으로 메달 획득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2018 생활체육지도자교육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8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생활체육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자 교육은 생활체육 지도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 능력 강화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양일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생활체육지도자 뉴 스포츠 종목으로 지도 능력 강화 )

실기 교육 첫날에는 개강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교육일정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첫 순서는 수상안전이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어 뉴 스포츠(플로어볼, 플로어컬링, 스포츠스택킹) 종목 교육은 각 80분씩 진행되었다. 경기운영 방법과 스포츠 용어 등의 이론적인 부분은 전문강사를 통해 충분히 교육 받은 후 실습에 들어갔다. 실습 종목 중 하나인 플로어볼은 남녀노



소 누구나 하기의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 종목으로 하기 형식을 변형한 경기이다. 빠른 스피드와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종목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둘째 날 교육일정은 4대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강평으로 1박 2일간의 교육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학교에서도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늘고 있다. 전문 지도자들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정기적인 지도자 교육을 통해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생활체육 서비스 환경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쉬어가기

### 뉴 스포츠란?

전문 스포츠를 쉽고 안전하게 변형하거나 결합해 만든 스포츠로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어 생활체육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게 육상형(축구형, 야구형, 배구형 등), 해양형, 산악형, 항공형 등으로 분류되며 국내에는 50여 종목이 보급되어 있다. 이 중 플로어볼, 플로어컬링, 스포츠스택킹 종목도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플로어볼**  
floorball

플로어볼은 농구 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floor)에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골을 넣는 스포츠 경기이다. 편한 운동복 차림에 스틱과 볼 그리고 골대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 없이 남녀노소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플로어컬링**  
floorcurling

플로어컬링(또는 플로어컬)은 동계올림픽 종목인 컬링을 얼음이 아닌 일반 바닥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기이다. 플로어컬의 장비는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스톤에 베어링을 붙여 일반 바닥에서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스포츠스택킹**  
Sport Stacking

스포츠스택킹은 12개의 스택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허물고 또 허물어가는 기술과 스피드를 가리는 스포츠 경기이다. 경기방법도 매우 간단하여 손과 눈, 그리고 두뇌의 긴장을 통하여 흥미로움을 더해 준다.

## 제99회

### 전국체육대회

#### 승리를 기원하며

# 오거돈 회장,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오는 10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목)까지 전라북도 익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강화 훈련 중인 부산체육고등학교 선수단 및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 오거돈 회장이 부산체육고등학교를 격려 방문하였다.

#### 전국체육대회 승리를 위한 전진

최근 5년간(2013~2017)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 6,585점, 2014년도 7,020점, 2015년도 6,171점, 2016년도 6,448점, 2017년도 6,937점을 획득하며, 평균 6,630점 이상의 점수를 차지하면서 고등부 전력 중 50% 이상 높은 기록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산체육고등학교의 21개 육성종목(육상, 체조, 에어로빅, 수영, 편수영, 사격, 양궁, 역도, 자전거, 태권도, 복싱, 레슬링, 유도, 펜싱, 정구, 조정, 카누, 럭비, 세팍타크로, 탁구, 근대5종) 활성화로 인해 더 높은 기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선수단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위대한 도전, 열정에 찬 노력으로 필승을 다짐하겠다”고 전했다.



#### 노력의 결실을 맺기 바라며

부산광역시체육회 오거돈 회장은 “작년과 다르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만큼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좋은 결과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산체육고등학교 김창민 교장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내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강화훈련을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던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끝으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U-19 세계선수권대회 릴레이 금메달을 획득한 문주성·이민서(근대5종) 선수, 2018 아시아주니어기계체조선수권 도마·링에서 금메달을 딴 손종혁(체조) 선수, 2018 세계주니어 파견 선발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안도현(레슬링) 선수,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규리(중장거리) 선수의 선전도 기대된다.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에게 최고의 운동

## 제1회 초등·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 대회

지난 9월 16일(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초등·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 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1회째를 맞이하는 철인3종 챌린지 대회는 비전문 선수들이 참가하여 초등학생(저학년부, 고학년부) 및 중학생 부

로 총 11개 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벌였다.



### 철인3종경기 저변 확대와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챌린지 대회는 학생들에게 「1인 1종목 운동하기」 취지에 맞는 현장 분위기 조성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과 철인3종경기 저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아쿠아슬론 경기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수영, 달리기 2개 종목으로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해 개최되어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은 수영 50m와 달리기 500m,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은 수영 100m와 달리기 1km, 중학생은 수영 200m와 달리기 2km로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제1회 초등·중학생 철인3종 챌린지 대회는 꿈나무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

#### \* 트라이애슬론(Triathlon)이란?

트라이애슬론 또는 철인3종경기는 일반적으로 세 종목의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경기를 말하며, 보통은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로 이루어진다. 세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시간을 경쟁하는 방법으로 이와 비슷한 경기인 듀애슬론 Du-athlon(달리기, 사이클, 달리기), 아쿠아슬론 Aquathlon(달리기, 수영, 달리기), 아쿠아바이크 Aqua bike(수영, 사이클), 크로스 트라이애슬론 Cross triathlon(수영, 산악자전거, 산악달리기), 크로스 듀애슬론 Cross duathlon(달리기, 산악자전거, 산악달리기)이 있다.

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대회를 통해 스포츠 꿈나무 발굴은 물론 부산체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길러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모두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기초 종목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

수영, 사이클, 달리기는 성장기 학생들의 튼튼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운동이다. 이런 기초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기초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인3종 꿈나무를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대회결과



| 초등부 1학년(남) |     |      |
|------------|-----|------|
| 금메달        | 사하조 | 김경환  |
| 은메달        | 부민초 | 민서진  |
| 동메달        | 연제초 | 박기람휘 |

| 초등부 3학년(남) |     |     |
|------------|-----|-----|
| 금메달        | 봉래초 | 김예준 |
| 은메달        | 광남초 | 조무경 |
| 동메달        | 대신초 | 정세윤 |

| 초등부 4학년(남) |     |     |
|------------|-----|-----|
| 금메달        | 절영초 | 강성중 |
| 은메달        | 부민초 | 김슬찬 |
| 동메달        | 정원초 | 심효인 |

| 초등부 5학년(남) |     |     |
|------------|-----|-----|
| 금메달        | 연포초 | 김준서 |
| 은메달        | 배산초 | 김한결 |
| 동메달        | 동신초 | 박성빈 |

| 초등부 6학년(남) |         |     |
|------------|---------|-----|
| 금메달        | 해동초     | 한태정 |
| 은메달        | 부산교대부설초 | 정재진 |
| 동메달        | 사하초     | 김태훈 |

| 중학생부 1학년(남) |      |     |
|-------------|------|-----|
| 금메달         | 낙동중  | 조한서 |
| 은메달         | 덕원중  | 송민혁 |
| 동메달         | 부산서중 | 이준하 |

| 중학생부 3학년(남) |     |     |
|-------------|-----|-----|
| 금메달         | 대신중 | 박재환 |



# “유소년 선수들이 승부를 떠나 소풍 온 듯 즐겁게”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  
송춘열 회장

부산 출신으로 한국축구의 레전드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용환 전 부산광역시축구협회 기술이사. 국가대표 주전 수비수로 맹활약하며, 1986 멕시코월드컵축구대회와 1990 이탈리아월드컵축구대회, 1988 서울올림픽대회 등 굵직굵직한 대회 때마다 한국의 수비진을 이끌었던 그는 2015년 5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그는 살아있다. 특히,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있는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연히 정용환 이사를 만나 후원회를 결성하고 이어 장학회로 발전시킨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 송춘열 회장. 최근 유소년 축구대회, 축구 꿈나무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를 만났다.

지난 5월, 유소년 축구단 16개 팀 277명이 참가한 ‘제2회 정용환배 꿈나무 축구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 지역 각 구를 대표한 순수 클럽팀 어린이들이 ‘제2회 정용환’을 꿈꾸며 축구장을 마음껏 달렸다. 경기 후 참가 선수와 가족들 600여 명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꽃을 피웠다. 이런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 회원들의 90%가 중식당 사장님이기 때문이다. 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송춘열 회장 역시 개금동에서 중식당을 운영 중이다.



## ● ● 2015년 정용환 후원회에서 장학회로 발전

식당 한 벽면에는 정용환 이사의 선수시절 사진이 판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꿈꿔왔던 그에게 정용환 이사와의 만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저희 가게 골목에 살던 분이 이사님 이종사촌 누나였어요. 제가 축구 좋아한다니까 내 동생이 축구선수라고 하며 직접 데려오신 분이 정용환 선수였죠” 국가대표까지 지낸 내로라하는 스타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소탈함에 반한 송 회장. 이후 정용환 이사는 중식당 회원들이 축구 연습을 할 때 직접 축구장에 나와 개인교습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감동한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2004년 ‘정용환 후원회’를 결성하며 열성팬들이 됐다. 그렇게 시작된 10년의 인연이 한층 굳어질 즈음, 지난 2015년 정용환 이사가 불의의 지병으로 떠나버리자 남은 이들은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로 모임을 발전시켰다. 송춘열 회장은 “그 분이 원래 유소년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못 다한 꿈을 이뤄드리자고 했어요.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찬성했죠”라고 말했다.

그 후 회원들 모두가 의기투합해 평소 꿈나무 육성에 열성을 바쳐온 고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회 때부터 꿈나무를 발굴해 장학금을 전달해오던 정용환 장학회는 아예 정용환의 이름을 딴 대회를 신설해, 꿈나무 인재육성,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송 회장은 “우리는 참가 선수를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 순수한 클럽, 동아리 소속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우리 말고도 정식 게임의 기회가 많은데 클럽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경기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축구가 소풍 나온 듯, 여행 온 듯 즐거운 것이기를 바라요. 맛있는 음식 먹고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 훗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회도 어른들 위주가 아니라 선수들이 편히 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 느리더라도 회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장학회로

장학회 회원들의 열정은 ‘정용환 축구꿈나무 장학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에너지다. 200여 명의 회원들 가운데 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회원이 절반을 넘는다. 송 회장은 “우리 회원들에게 큰절 드리고 싶어요. 저야 개인적으로도 정용환 이사님과 친분이 있지만, 다른 회원들은 뵙지도 못하고 소문 듣고 와서 활동하시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다른 대회와 연계해서 할 생각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국집은 거의 화요일이 휴무거든요. 주말에 하면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참가를 못하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용환배 축구대회도 올해는 마침 부처님오신날이 화요일이라 5월에 진행했지만, 작년에는 2월 봄방학에 했고, 내년에도 2월에 개최할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조금 더디더라도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쓰고 싶다는 송춘열 회장. 함께해온 회원들과 내일도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그에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 다음 아닌 ‘정용환 기념관’을 만드는 것.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그 분의 뜻을 기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대회 열고, 열심히 장학금 주고, 열심히 기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기를 당부했다.



## 2018 부산씨름왕선발대회 및 제2회 부산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

씨름은 두 사람이 살바나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자 운동경기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런 씨름대회의 부활을 알리는 「2018 부산씨름왕선발대회 및 제2회 부산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가 지난 9월 14일(금)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무대 특설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 2018 부산씨름왕선발대회 단체성적

1위 : 해운대구 | 2위 : 북구 | 3위 : 사상구 | 장려상 : 금정구



## 부산씨름왕 선발대회

### 2018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인성적

청년부 ⓠ 1위 : 금정구 주재우 | 2위 : 사상구 김재우 | 공동 3위 : 북구 김민철, 사상구 조남우  
중년부 ⓠ 1위 : 해운대구 이금성 | 2위 : 기장군 김효섭 | 공동 3위 : 서구 장진규, 북구 손경섭  
장년부 ⓠ 1위 : 연제구 여연태 | 2위 : 해운대구 허성용 | 공동 3위 : 사하구 박상봉, 북구 김원근  
여자 60kg이하 ⓠ 1위 : 사상구 김민서 | 2위 : 수영구 유귀연 | 공동 3위 : 수영구 조세희, 북구 김주영  
여자 70kg이하 ⓠ 1위 : 해운대구 김채린 | 2위 : 금정구 김은애 | 공동 3위 : 사상구 이미정, 해운대구 차효빈  
여자 80kg이하 ⓠ 1위 : 북구 최은희 | 2위 : 강서구 유소망 | 공동 3위 : 강서구 김연우, 해운대구 이소담

### 가을을 알리는 씨름대회 열려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씨름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 부산광역시씨름협회 최현돌 회장, 부산광역시 강성태 수영구청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힘찬 격려를 보냈다. 부산광역시씨름협회 최현돌 회장은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씨름경기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씨름이 격세지감으로 비인기 스포츠가 됐다.  
하지만 씨름경기의 부활을 위해 노력해  
다시 씨름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며 대회사를 전했다.

### 모두가 참여한 흥겨운 씨름 열전

이번 씨름대회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표하는 남자 3개부(청년부, 중년부, 장년부)와 여자 3개부(60kg, 70kg, 80kg

체급별)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한 부산씨름왕선발대회와 부산의 초등학생, 중학생 꿈나무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부산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가랑비가 오기 시작해 대회장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씨름을 사랑하는 동호인 및 선수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비는 개회식을 끝으로 그쳤고 대회 진행은 무리 없이 이어졌다.

씨름대회는 치열했다. 성별, 체급별, 나이대에 따라 참가한 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며 경기에 임했다. 들배지기, 호미걸이, 뒤집기, 되치기 등 단순한 체급 씨름이 아니라 화려한 기술 씨름이 펼쳐졌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대회는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개인전 우승자들이 탄생했다.

부산씨름왕선발대회 종합우승은 해운대구에 돌아갔으며, 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 단체우승은 내리초등학교, 운송중학교에 돌아갔다.

### 2018 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 단체성적

초등부 ⓠ 1위 : 내리초 | 2위 : 안락초 | 3위 : 운송초  
중학부 ⓠ 1위 : 운송중 | 2위 : 신곡중 | 3위 : 연천중



## 꿈나무씨름왕 선발대회

### 2018 꿈나무씨름왕선발대회 개인성적

초등부 태백급 ⓠ 1위 : 안락초 정상원 | 2위 : 운송초 이준영 | 3위 : 운송초 김범진  
초등부 금강급 ⓠ 1위 : 내리초 김강민 | 2위 : 운송초 윤지성 | 3위 : 내리초 박경림  
초등부 한라급 ⓠ 1위 : 내리초 이준명 | 2위 : 안락초 이해성 | 3위 : 안락초 하동건  
중학부 태백급 ⓠ 1위 : 연천중 흥성민 | 2위 : 운송중 성태용 | 3위 : 신곡중 엄가람  
중학부 금강급 ⓠ 1위 : 연천중 김민규 | 2위 : 신곡중 차민제 | 3위 : 운송중 송승민  
중학부 한라급 ⓠ 1위 : 운송중 이민웅 | 2위 : 신곡중 장민수 | 3위 : 연천중 김준영



##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6차 이사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10일(월) 부산시의회 대회 의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요업무 현황 보고와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BUSAN SPORTS COUNCIL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2일(일) 폐회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제18회 하계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선수단 참가 결과,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심의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미래 발전위원회 설치(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체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사회가 마무리 되었다.

국내 유일의 부산 최초 실업족구팀  
**더 이스트 창단식 개최**

대한민국에서 태동한 국내 유일, 부산 최초의 실업족구팀이 탄생했다.

부산광역시족구협회는 지난 7월 6일(금)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위치한 대형 레스토랑 「더 이스트인 부산」에서 부산 최초의 족구실업팀 「더 이스트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더 이스트」는 (주)일등그룹 장성일 대표가 후원을 맡고 장성완 단장을 필두로 하여, 최용철 감독과 국내 최고의 공격수 장한빈 선수를 스카우트 하여 10여 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었다. 「더 이스트」 장성완 단장은 “우리나라 족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았다. 실업팀 창단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및 더 나아가 올림픽대회까지 도전해 보고 싶다”며 당찬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실업족구팀이 창단되어 청년실업에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창단 비전으로 「족구 꿈나무 육성」, 「청소년 및 여성족구 발전기금 조성」, 「선수들의 생활권 보장」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족구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 이스트」 족구단은 지난 3년여 간의 창단 과정을 거쳐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최근에는 「2018년 부산신춘족구대회」와 「제29회 부산광역시장기족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난 7월 체코에서 열린 「제1회 세계족구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왔다.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족구가 이번 “더 이스트 실업팀 창단”으로 족구 종목의 저변 확대와 함께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쿠오카에서 다시 빛난 한일 스포츠우정  
**2018 부산·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

지난 8월 22일(수)부터 24(금)까지 3일간 후쿠오카 일원에서 「2018 부산·후쿠오카 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부산광역시 자매도시인 후쿠오카시와의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양 도시를 오가며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농구(미나미체육관), 배드민턴(서체육관), 요트(후쿠오카시 요트하버), 축구(하카타 모리육상경기장), 테니스(세이난노모리코 항공원) 등 5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부산선수단은 임원 31명, 선수 66명 등 총 97여 명이 참가해 우정을 다졌다.

농구 종목에 금명중, 동주여중 학생 총 22명이 참가하였으며 배드민턴 종목에는 부산동고, 성일여고에서 총 13명이 참가하여 단체전으로 경기를 치렀다. 양운고 선수로만 구성된 요트는 420급, 레저급 경기로 진행되었고, 축구는 개성고 선수들이 2번의 시합을 하였다. 그리고 동래고 선수들이 참가한 테니스 종목은 단식과 시범경기로 진행되었다. 협약을 맺고 시작한 아래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교류대회는, 두 도시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장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재희 단장은 “이번 대회가 스포츠 교류를 통한 청소년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며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국제경기의 경험과 양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소속 입상선수단 격려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10일(월)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소속 입상선수단 격려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부산선수단은 21개 종목 75명의 선수와 2명의 지도자가 참가하여 15개 종목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의 성적보고 후 부산시장이 부산선수단을 대표하여 카바디 이장군 선수와 근대5종 김세희 선수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지도자를 대표하여 카바디 조재호 감독과 세팍타크로 광성호 감독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2020 도쿄올림픽대회에서도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 발굴과 육성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 부산선수단 메달리스트 ▶ 금 4, 은 9, 동8

| 연번 | 구분     | 종목    | 세부종목     | 소속       | 성명            |
|----|--------|-------|----------|----------|---------------|
| 1  |        | 볼링    | 6인조      | 부산시청     | 구성희           |
| 2  |        | 요트    | 레이저      | 해운대구청    | 하지민           |
| 3  |        | 축구    | 단체전      | 부산아이파크   | 김문환           |
| 4  |        | 야구    | 단체전      | 롯데자이언츠   | 손아섭           |
| 5  |        | 근대5종  | 개인전      | 부산시체육회   | 김세희           |
| 6  |        | 사격    | 트랩       | (주)KT    | 강지은           |
| 7  |        | 세팍타크로 | 레구       | 부산환경공단   | 김이슬, 이민주, 김동희 |
| 8  |        | 카바디   | 단체전      | 부산카바디협회  | 이장군 외 11명     |
| 9  | 은메달(9) | 농구    | 3x3      | (주)KT    | 양홍석           |
| 10 |        | 역도    | +75kg    | 부산시체육회   | 손영희           |
| 11 |        | 카누    | k-4 500m | 부산강서구청   | 최민규, 김지원, 조정현 |
| 12 |        | 다이빙   | 싱크로3m    | 국민체육진흥공단 | 우하람           |
| 13 |        | 다이빙   | 싱크로10m   | 국민체육진흥공단 | 우하람           |
| 14 |        | 다이빙   | 1m스프링보드  | 국민체육진흥공단 | 우하람           |
| 15 |        | 다이빙   | 10m플랫폼   | 국민체육진흥공단 | 우하람           |
| 16 |        | 가라테   | 카타       | 부산대학교    | 박희준           |
| 17 |        | 수영    | 훈성 혼계영   | 부산체육고등학교 | 박예린           |
| 18 |        | 볼링    | 마스터즈     | 부산시청     | 구성희           |
| 19 |        | 세팍타크로 | 레구       | 부산환경공단   | 임태균           |
| 20 |        | 탁구    | 단체전      | 한국마사회    | 서효원           |
| 21 | 동메달(8) | 농구    | 단체전      | (주)KT소닉붐 | 허 훈           |



## 함께여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송미현 사무처장 퇴임 기념식

지난 8월 23일(목) 송미현 사무처장의 퇴임 기념식이 마련되었다. 기념식은 재직기념패와 기념품 전달식으로 진행되었다.

재직 당시 송미현 (전)사무처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KSOC))로 출범 이후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냈으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전문체육선수 육성이라는 선진국 형식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골든블루 정구팀, 부산새빛 검도팀, 콜링 빙상팀 등)과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 및 성취상을 획득하는가 하면,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화합상과 질서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기초 작업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을 일구며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면 부산체육은 밝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서 아쉬운 이별을 고하려 합니다. 이별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있어 희망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기에 슬퍼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도약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기꺼이 보탤 것입니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1 어린이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중구체육회는 지난 7월 24일(화)부터 8월 16일(목)까지 175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련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였다. 운영 기간 동안 수영교실 및 하계캠프가 진행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정을 도모하고 협동심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01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부산서구체육회는 지난 7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양일간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서구 관내 초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체능교실」을 운영하였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번 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입소식, 레크리에이션, 수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였으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02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운영

부산서구체육회는 지난 8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양일간 구덕청소년수련관,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서구 관내 14가정 60명이 참가하는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개최하였다.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모험 체험과 숲 체험을 즐기고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는 카약과 바나나보트, 모터보트를 가족과 함께 즐기며 더욱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03 제5회 해수부장관배 송도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부산서구체육회는 지난 8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양일간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50,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5회 해수부장관배 송도전국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송도전국해양스포츠대회는 송도해수욕장 특화 종목인 카약을 비롯해 해상다이빙, SUP(Stand Up Paddle Boarding), 비치사커, 펀수영 종목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인 전국청소년댄스 대회, 해상다이빙쇼, 물총싸움 등도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여러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 04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부산서구체육회는 지난 7월 25일(수)부터 8월 24일(금)까지 송도스포츠센터 외 2개소에서 「청소년체련교실」을 운영하였다.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수영, 탁구, 요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학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 01 청소년체련교실 및 주5일제 실천광장 캠프 운영

동구체육회는 지난 7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양일간 거제도 가배랑리조트에서 청소년 및 가족 구성원 90명이 참가한 「청소년체련교실 및 주5일제 실천광장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해양레포츠 체험인 바나나보트, 카약, 래프팅 및 바다 체험인 갯벌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한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 02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8월 21일(화)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3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전자회의 요약, 임원변동, 생활체육교실 상반기 개최,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여성체육대회 개최, 청소년체련교실 및 주5일제 실천광장 개최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영도구체육회

#### 01 어린이체능·청소년체련캠프 운영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8월 10일(금) 경북 성주군 아라월드에서 영도구 거주 초등학생 고학년(4, 5, 6학년) 40명과 중학생 30명 등 총 7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체능·청소년체련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날 캠프는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레포츠체험(모터보트, 미끄럼틀, 워터파크, 바나나보트)을 통해 해양레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해양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02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캠프 운영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8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양일간 경남 산청 경호강에서 영도구민 가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날 캠프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여가시간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01 어린이 체능캠프 및 청소년 체련캠프 운영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7월 24일(화) 어린이 체능캠프 25일(수) 청소년 체련캠프를 개최하였다. 양일간 롯데워터파크를 방문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상안전·응급처치·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겼다.



#### 02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캠프 운영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7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양일간 거제 가배랑 리조트 수련원에서 15가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바나나보트, 카약, 래프팅, 갯벌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은 “평소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동래구체육회

#### 01 제21회 동래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개최

지난 7월 7일(토) 사직실내체육관에서 1,000여 명의 태권도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1회 동래구청장기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동호인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회 결과는 1위 거학태권도장, 2위 베스트성동태권도장, 3위 동래세계태권도장이 차지하였다.



#### 02 2/4분기 (사)동래구체육회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7월 20일(금)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사)동래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사)동래구체육회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총회는 (사)동래구체육회 임원 추가 인준사항 보고 및 회장 선임을 진행하는 자리가 되었다. 총회 후 참가자들은 만찬을 즐기며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03 제8회 동래구배구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7월 21일(토) 사직실내체육관 보조A·B경기장에서 100여 명의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동래구배구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여자부 1위 동래클럽, 2위 매화클럽, 남자부 1위 영도대평클럽이 차지하였다.



#### 04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지난 7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1박 2일간 경주 일원에서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을 개최하였다. 행사를 통해 동물원 체험 및 캘리포니아비치(물놀이 체험), 경주월드(놀이기구 사용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협동심을 키우는 장이 되었다.



#### 05 제2회 동래구플라잉디스크연맹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7월 28일(토) 낙민초등학교 강당 및 운동장에서 450여 명의 플라잉디스크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동래구플라잉디스크연맹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부산클럽, 더나아짐, 반디어 외 21팀이 입상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남구체육회

#### 01 다문화가정 패밀리데이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7월 1일(일) 김해장유 롯데워터파크에서 다문화 12가족 구성원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일본, 캐나다, 대만,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이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불볕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가족과 함께 건전한 여가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 02 청소년 체련교실·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가족캠프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7월 15일(일) 「2018 청소년 체련교실」, 7월 22일(일)과 29일(일)에는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가족캠프」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다. 청소년 체련교실에는 중학생 60명,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에는 31가족 10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상레저스포츠 SUP(패들보드), 서핑, 땅콩보트 등 다양한 강습을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 03 임시대의원총회·정기이사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7월 10일(화)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선 7기 박재범 남구청장을 남구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장소에서 지난 7월 20일(금)에는 박재범 회장을 비롯해 임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이사회에서는 남구체육회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회의 후에는 회원 종목 단체장들과 남구체육회 임원들이 종목별 개선사항과 체육회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구·군체육회 소식

### 북구체육회

#### 01 북구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패밀리데이 운영

지난 7월 8일(일) 장유 롯데워터파크에서 37여 명의 북구민이 참가한 「2018 북구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패밀리데이」가 개최되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문화 융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02 북구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난 7월 14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7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북구 협회장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 결과 1위 포천체육관, 2위 태림세계체육관, 3위 대천체육관이 각각 차지하였다.



#### 03 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8월 9일(목) 북구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명희 회장의 추대식도 같이 진행되었다.



#### 04 제18회 북구 배드민턴 협회장기 추계대회 개최

지난 8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양일간, 강서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7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18회 북구 배드민턴 협회장기 추계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 결과 1위 심명클럽, 2위 참 좋은화신클럽, 3위 화잠클럽이 각각 차지하였다.



#### 05 제73주년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개최

지난 8월 26일(일)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에서 6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73주년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경기 결과 1위 구포3동, 화명동, 2위 만덕3동, 덕천3동이 각각 차지하였다.



## 구·군체육회 소식

### ○ 해운대구체육회

#### 01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 동호인대회 개최

지난 7월 1일(일)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내 스쿼시코트장에서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스쿼시 동호인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였다. 이날 선수들은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경기 결과, 새내기부 남자단식 1위는 송언탁(해교SC), 여자단식 1위는 김지영(해교SC) 선수가 차지하였고, 일반부 남자복식 1위는 곽금일(해교SC), 박건호(피닉스), 혼합복식 1위는 이상범(피닉스), 김정미(피닉스), 남자단식 1위는 이상범(피닉스) 선수가 차지하였다.



#### 02 해운대구태권도협회장기 오픈 전국품새대회 개최

지난 7월 14일(토) 기장 실내체육관에서 「해운대구태권도협회장기 오픈 전국품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61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경기 결과 종합 1위는 용인대 K.A.T태권도, 종합 2위는 인지아시아드태권도, 종합 3위는 MJ태권도가 차지하였다. 참가 선수들은 태권도 대회를 통하여 자신의 기량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03 제1회 해운대구 보디빌딩협회장배 Ms & Mr해운대 선발 대회 개최

지난 7월 22일(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해운대구 보디빌딩협회장배 Ms&Mr 해운대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259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으며, 대회 결과로는 고등부 : 65kg 김승원, +65kg 김민제, 대학부 : 무체급 김영주, 마스터보디빌딩 : 무체급 장동진, 여자스포츠모델 : -163cm 오지예, +163cm 손예림, 클래식 보디빌딩 : -171cm 이동규, -175cm 장동진, -180cm 김수현, +180cm 황상인, 여자피지크 : -163cm 이숙정, 남자피지크 : -175cm 황성진, +175cm 강홍구, 여자보디피트니스 : -163cm 임수진, +163cm 송예림, 남자피지크 : -175cm 방지훈, -180cm 김수현, +180cm 이승철, 여자비키니 : -163cm 오지예, -168cm 김지영, +168cm 배고은, 일반부 : -60kg 김재학, -65kg 박성범, -70kg 최동수, -80kg 장동진, -85kg 김진봉, +85kg 윤기봉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 ○ 구체육회

## 구·군체육회 소식

#### 04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족구대회 개최

지난 8월 26일(일) 석대 수영강변 원동구장에서 「제2회 해운대구청장배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200여 명의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했으며 대회 결과, 관내1부 한새, 관내2부 해운B, 관내3부 한새B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참가한 클럽의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05 제4회 해운대구청장기 검도대회 개최

지난 8월 12일(일) 기장 실내체육관 내 소체육관에서 「제4회 해운대구청장기 검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23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검도 대회를 통해 건강증진과 동호인 간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대회 결과는 개인전에서 유치부, 초등1 권도현, 초등2 최희온, 초등3 김지송, 초등4 박성호, 초등5 조주원, 초등6 유우석, 초등여자 이유림, 청소년부 서재민, 여자부 아마모토유카, 청·장년부 이호영, 중년부 이태경, 노년부 신용화, 단체전에서는 초등저학년 장산관A(조주원, 김도건, 이유림), 초등고학년 장산A(조주원, 유우석, 김태영), 청소년부 영무재(서재민, 권태균, 진우승), 여자부 외검희(장호진, 김은조, 아마모토유카), 일반부 안민관(성찬호, 이태경, 이진훈)이 수상하였다.



#### 01 주5일제 가족캠프 운영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7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양일간 다대포해양레포츠에서 「주5일제 가족캠프」를 개최하였다. 양일간 70명의 가족들이 참가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서핑, SUP, 동력기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 02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7월 24일(화) 다대해양레포츠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 100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서핑, SUP, 땅콩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구·군체육회 소식

## 금정구체육회

### 01 어린이·청소년 해양무료캠프 운영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7월 25일(수)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해양무료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날 금정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평소 접하기 힘든 종목인 서핑, SUP보드, 뱀드웨건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 02 다문화가정 체육지원사업 패밀리데이 운영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8월 29일(일) 통도아쿠아환타지아에서 「다문화가정 체육지원사업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금정구 내 다문화가정들이 참가하였으며 장마가 지속되어 안전사고와 건강이 우려되었지만 이날만큼은 워터파크 체험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의 문화와 여가체육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는 기회가 되었다.



### 03 제10회 사하구청장배족구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9월 9일(일) 을숙도 인조잔디구장에서 「제10회 사하구청장배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동호인 300여 명을 포함하여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내주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 사하 관내 1부 1위는 혜우, 2위는 삼환A, 3위는 여울A, 청산A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하 관내 2부 1위는 삼환, 2위는 승학, 3위는 캐슬A, 알로이시오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동호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04 다문화가정 체육지원사업 패밀리데이 운영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8월 29일(일) 통도아쿠아환타지아에서 「다문화가정 체육지원사업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금정구 내 다문화가정들이 참가하였으며 장마가 지속되어 안전사고와 건강이 우려되었지만 이날만큼은 워터파크 체험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의 문화와 여가체육활동을 경험하였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

## 강서구체육회

### 01 부산광역시 강서구 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7월 12일(목) 대저수문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파크골프협회장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임직원 및 동호인들이 참가해 대저수문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의 개장을 기념하고 열띤 경기를 펼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02 정기이사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7월 19일(목) 강서구청 문화원 강당에서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하반기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논의와 기타 안건토의 등을 논의하고 차후 강서구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 03 체육회산하단체 임원안전교육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8월 21일(화) 강서구청 7층 회의실에서 「체육회산하단체 임원안전교육」을 개최하였다. 강서구체육회의 임직원 및 산하단체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및 응급위기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04 강서구민 가족캠프 운영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8월 7일(화) 경주월드 캘리포니아비치에서 「강서구민 가족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구성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무더운 여름철에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가족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연제구체육회

#### 01 제10회 연제구 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7월 1일(일) 삼호볼링장에서 16개 클럽 25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연제구 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 결과 1위 부남클럽 전재호 선수, 2위 퍼팩트클럽 강산찬 선수, 3위 일체 회클럽 오태훈 선수, 4위 쇠미클럽 왕영길 선수가 수상하였다.



#### 02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패밀리데이 운영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7월 7일(토)과 8월 18일(토) 두 번에 걸쳐 양산 통도아쿠아환타지아에서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연제구 관내 다문화가정 24가족 총 73명이 참가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에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 03 연제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7월 5일(목) 다이아몬드호텔 연회실에서 「연제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연제구체육회장 추대 의결 건, 연제구체육회 이사회 현황 보고, 향후 계획 등의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그 외 기타 토의를 마무리하였다.



#### 04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가족캠프 운영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8월 4일(토)부터 5일(일)까지 양일간 연제구민 21가족 총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산청 늘비물고기마을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가족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는 경남 산청에 위치한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즐기고 구형왕릉과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는 등 가족구성원이 다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수영구체육회

#### 01 다문화가정 패밀리데이 운영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7월 5일(목)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다문화가정이 참가한 가운데 SUP체험교실 「다문화가정 패밀리데이」를 개최하였다. 오전 9시부터 두 파트로 나누어 약 30명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SUP체험 후 광안리해수욕장 내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여러 다문화가정이 모여 SUP체험도 하고 즐겁게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 02 수영구체육회 7월 이사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7월 19일(목) 아쿠아펠리스에서 수영구체육회장, 친목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직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영구체육회 7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수영구청장이자 수영구체육회장 직책을 맡은 강성태 회장의 취임식과 수영구의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 박현욱 수영구청장이 고문으로서 신임 수영구체육회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추진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였고 수영구체육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 03 체육회산하단체 임원안전교육 개최

지난 8월 2일(목)부터 8월 3일(금)까지 양일간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영구 어린이청소년 캠프」가 개최되었다. 수영구청 구민홀에서 개회식 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생존수영 및 SUP체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위험한 물놀이에 필요한 생존수영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고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SUP체험을 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하게 되었다. 이후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여 레크리에이션 및 천체관측을 하였으며 이어 스포츠 클라이밍 프로그램 등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사상구체육회

#### 01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운영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가 지난 7월 14일(토)부터 7월 15일(일)까지 양일간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족구성원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해양안전체험장에서 바다수영, 블롭점프(Blob jump), 씨카약(Sea kayak), SUP(패들보트) 등 총 9가지의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었으며 이어서 레크리에이션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캠프가 마무리 되었다.



#### 02 임시총회 개최

7월 24일(화)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구체육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김대근 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01 기장군체육회 주5일 주말가족캠프 운영

「기장군체육회 주5일 주말가족캠프」가 지난 7월 14일(토)부터 7월 15일(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80여 명의 가족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여름 가족캠프는 주5일제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가족 단위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스포츠캠프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02 기장군 어린이·청소년 여름 체련교실 운영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8월 14일(화) 경상북도 경주시 블루원에서 초등고등학생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어린이·청소년 여름 체련교실」을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여름캠프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소에 즐기지 못하는 여름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이 되었다.



## 회원종목단체 소식

### 기장군체육회

#### 01 걷기협회 > 제60회 웨빙걷기대회 성료

부산광역시걷기협회가 주최하고 동래구걷기협회가 주관하는 제60회 웨빙걷기대회가 지난 7월 21일 중앙공원 입구에서 부산시민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걷기 코스는 중앙공원 → 구봉산안부 → 가족체육공원 → 연화사 → 아란야를 지나는 코스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 02 농구협회 > 제1회 부산광역시 종별생활체육농구대회 개최

지난 6월 30일(토)부터 7월 22일(일)까지 「제1회 부산광역시 종별생활체육농구대회」가 사직실내체육관 및 부산시체육회관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학부, 클럽부, 40대부 선수 및 농구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 동호인 간에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회 결과 우승은 대학부 바구니, 클럽부 이나설디, 40대부 스포츠아트가 각각 차지하였다.



#### 03 바둑협회 > 2018 부경 프로기사 초청 교류전

지난 8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양일간 중앙동 흥우빌딩 14층 부산바둑협회에서 26회 부경프로기사 초청교류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부경프로기사 초청교류전」은 부산바둑협회 이철승 회장의 후원으로 부산과 서울을 대표하는 프로기사 16명을 초청하여 총 2회전에 걸쳐 승부를 겨루는 대국으로 진행되었다. 초청팀인 서울팀 기사는 서능욱 9단, 김수장 9단, 안조영 9단, 목진석 9단, 이정우 9단, 박정상 9단, 조한승 9단, 이다혜 5단이 초청되었고 부산팀은 양재호 9단, 김영환 9단, 윤현석 9단, 강지성 9단, 최철한 9단, 서무상 8단, 장건현 3단, 오정아 3단 등 많은 프로기사가 참석하여 대국을 펼쳤다.



#### 04 배드민턴협회 > 동의대학교 남자 배드민턴 단체전 우승

동의대학교 배드민턴부는 지난 7월 31일(화) 2018 협회장기 전국대학배드민턴연맹전 남자대학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동의대학교는 결승전에서 백석대학교와 맞붙어 첫 경기 단식에서 패했지만 2단식 주자인 안상욱이 2-1 승리를 거뒀고, 이어 진행된 복식 경기에서 최혁균, 이상민 조가 1-2로 패해 다시 밀렸다. 하지만 두 번째 복식 경기에서 임원빈, 전상필 조가 승리하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끝으로 마지막 단식 주자로 나선 강형석이 상대를 2-0으로 승리하면서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하였다.



## 회원종목단체 소식

### 05 볼링협회 > 제11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볼링대회

부산광역시 볼링협회는 지난 8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양일간 동래구 삼성볼링장에서 1,12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볼링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동의 참가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볼링 동호인의 친목도모 및 볼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이 되었다. 대회 결과 1위 레인보우클럽, 2위 스타클럽, 3위 치얼스클럽, 4위 필웨이클럽이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06 씨름연맹 > 부산갈매기씨름단 대통령기대회 준우승

부산갈매기씨름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일반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부산갈매기씨름단은 결승전에 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경장급(-75kg), 용사급(-95kg), 역사급(-105kg)에서 이겼으나 나머지 4개 체급에서 패해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부산시씨름연맹 관계자는 “올해 남은 전국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07 자전거연맹 > 8·15경축 2018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지난 8월 15일(수)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8·15경축 2018 양양 국제사이클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남자일반부에서 단체스프린트 1위 및 세부종목에서 1위 3개, 2위 5개, 3위 1개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연번 | 선수명           | 소속  | 참가종목   | 결과(순위) | 비고  |
|----|---------------|-----|--------|--------|-----|
| 1  | 김영수, 김도현, 정재희 | 스포원 | 단체스프린트 | 1위     | 남일반 |
| 2  | 김영수           |     | 스프린트   | 2위     |     |
| 3  | 김수현           |     | 500m독주 | 1위     |     |
| 4  | 김수현           |     | 스프린트   | 1위     |     |
| 5  | 김채현, 김승연, 김수현 |     | 단체스프린트 | 2위     | 여일반 |
| 6  | 김승연           |     | 경륜경기   | 2위     |     |
| 7  | 권소연           |     | 1LAP   | 2위     |     |
| 8  | 김채현           |     | 스크래치   | 2위     |     |
| 9  | 김채현           |     | 템포레이스  | 3위     |     |

## 회원종목단체 소식

### 08 정구협회 > 필리핀 국가대표 정구팀과 합동훈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던 필리핀 정구 국가대표팀 남녀 선수들이 지난 8월 1일(수)부터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골든블루 남자 정구팀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필리핀정구협회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을 하였으며, 골든블루 정구팀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기 위해 피나는 합동훈련을 하였다.



### 09 축구협회 > 부산 부경고등학교 고교축구 최강자 등극

전국 고교축구 최고 권위 대회인 「제54회 추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이 혈투 끝에 부산 부경고등학교의 우승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3일(목)에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 부경고등학교가 대회 최다 우승(7회)팀이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서울 언남고등학교를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긴 뒤 5대4의 승부차기 끝에 꺾고 올해 고교축구 최강자로 등극했다. 개인상 부문으로 최우수선수상에는 부경고등학교 김상훈, 우수선수상 언남고등학교 강재우, 득점상 언남고등학교 이상진, 공격상 부경고등학교 전우빈, 수비상 언남고등학교 김재호, GK상 부경고등학교 김지홍, 베스트영플레이어상 언남고등학교 송준석, 최우수지도자상 부경고등학교 안선진 감독과 유효진 코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10 킥복싱협회 > 제3대 부산킥복싱협회장 취임식 및 지도자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는 지난 8월 18일(토) 동구 초량동 노블리아뷔페에서 「제3대 부산킥복싱협회장 취임식 및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부산킥복싱 신임회장(박성현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과 각 구대의원 및 킥복싱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부산킥복싱 발전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01 제2회 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7월 1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제2회 거점스포츠클럽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된 테니스대회는 여성클럽을 위한 여성동배조 테니스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테니스대회는 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 02 제15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입상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8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거점스포츠클럽 펜싱 전문선수반은 남초부, 여초부에서 각각 단체전 준우승을 따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의 전문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01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금정부산외대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7개 종목(농구, 방송댄스, 배드민턴, 세라밴드, 축구, 치어리딩, 펜싱), 9개의 프로그램, 총 2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 일 양일간 실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성장기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어른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02 금정부산외대, 서구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및 고성현 선수 초청 팬사인회 개최

지난 6월 24일(목) 부산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금정부산외대스포츠클럽과 서구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공공스포츠클럽간의 교류대회로 리우 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출가한 김천시청 고성현 선수를 초청하여 팬사인회는 물론 일일강습 기회를 가지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건강백세의 필수품 운동

작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예측한 평균 수명 모델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여성 평균 수명 90세에 도달한다고 한다. 백세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예감인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건강하게 백세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운동의 중요성



아마도 시대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건강하게 백세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운동’ 또는 ‘신체활동’을 꼽는 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운동량이 현대로 오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최근에는 적절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쇠의 주요 기전인 근육위축을 치료하고, 책을 읽거나 외우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기억력 증진과 치매예방 효과에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항목으로 운동을 꼽으면서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은 건강백세를 위한 절대적 필수품인 운동을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 운동 종류의 결정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걷기, 조깅, 줄넘기, 자전거, 테니스, 수영, 에어로빅 등)과 무산소 운동(단거리 빨리 달리기, 근력 트레이닝, 역도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면서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무산소 운동은 갑작스런 몸의 사고에 대비하는 능력을 길러주지만 혈관 저항의 증가 등으로 심장에 부담을 과격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적응이 된 사람이 시도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자신 있는 운동을 택하는 것이 좋다. 좋아하는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릎, 허리 등에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물속 걷기’나 ‘수영’이 좋다. 물이 깊은 사람은 자전거나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여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부위의 근육강화 운동으로 관절 주위의 근육 보호작용을 증가시킨 후 다른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폐경기 여성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 뼈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 좋다. 땅 위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걷기, 조깅, 등산, 줄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운동의 빈도 및 강도



적절한 양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지속하면 제일 좋지만, 꼭 매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산소 운동이나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를 추천한다. 운동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피로가 지속되거나 그 다음날 일어나서 뻐근한 곳이 있다면 운동의 빈도나 강도가 심했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일주일에 2회 이하의 운동은 축적 효과가 별로 없다. 할 때마다 같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심폐기능의 향상도 별로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대체로 이틀에 한 번 이상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에 급격한 무리를 주어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빨리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Stretching Exercise) 등이 적당한데, 5분에서 10분 정도 한다. 준비 운동은 대체로 잘하는데, 운동을 마치자마자 샤워장으로 직행하는 등 마무리 운동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마무리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사고를 당하기 쉽다.

### 운동 습관의 유지



운동에 재미도 붙이고 효과도 제대로 얻으려면 운동의 양을 점차 늘려야 한다.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분씩 늘리는 방법도 좋다. 대체로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에서 3개월이 지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운동의 습관화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카드가 있다. 평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다. 자가용 대신 전철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집안의 리모컨은 모두 없애버린다.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운동의 건강에 대한 효과는 대부분 얻을 수 있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 NEWS PANORAMA



## 행복나눔 은퇴선수단체 여름캠프 개최

소외계층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포츠 교실



대한체육회는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은퇴선수단체에서 개최하는 여름캠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체험, 스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행복나눔 스포츠교실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매년 5~11월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17개 종목 350개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선수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전 국가대표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직접 스포츠를 지도하고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는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2 대한체육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코리아하우스에서 스포츠 외교의 장 '한국의 밤'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25일(토) 저녁 7시 자카르타 에스페베데(SCBD)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에서 국내외 주요 내빈을 초청하여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밤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각 국가별 올림픽위원회, 종목별 국제연맹 등 국제 스포츠 단체 소속 인사에게 참가국인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외교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인사와 인도네시아 대사관,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원 등 현지 교민들과의 스포츠를 통한 상호 교류의 장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한국의 밤 행사는 역동적인 LED 퍼포먼스인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개식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 및 건배사가 이어졌다. 이후 색과 맛, 갖가지 나물과 쌀밥,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조화와 융합을 상징하는 한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요리하는 세레모니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 고유의 흥을 보여주는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교민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이루어졌다.

출처 : 대한체육회

## 3 제11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대한체육회는 7월 25일(수)부터 31일(화)까지 7일 동안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중국 하남성(낙양시) 선수단을 초청하여 「제11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는 '양국 우호 증진 및 스포츠 상호발전 도모'를 위해 양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수단 160명(한국 80명, 중국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농구, 탁구, 배드민턴 3개 종목의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은 7일 동안 대전광역시 한밭체육관, 대전 중·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도솔체육관 등에서 학동훈련과 공식경기 등의 스포츠 교류전을 가졌다. 또한 오월드, 중앙과학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명동투어 등 다양한 문화, 역사 탐방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 중국 양국의 스포츠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다. 양국 청소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꿈나무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초청 사업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중국 하남성(낙양시)에서 제11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파견 사업이 실시되며 대전광역시 선수단을 주축으로 한국선수단 8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 NEWS PANORAMA



4



## 「2018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 태릉선수촌에서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7일(화)부터 4일간 태릉선수촌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원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초등교원의 체육 과목 지도력을 향상시켜 실제 체육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 있는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체육 이론 6시간, 체육 실기 24시간 등 총 30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일선 초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태릉선수촌 개선관과 승리관에서는 헬링체육, 스파크 프로그램, 핸드볼·체조·육상·배드민턴 지도법 등 의 실기 수업이 진행되며, 임오경 감독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업 지도자로 직접 참가하여 수업의 현장감을 더욱 높였다. 이론 수업은 '바람직한 체육 수업 이야기', '세계 학교체육의 동향과 미래 학교 체육지도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8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으며,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원들이 참가하여 초등학교 체육 수업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5

## 대한체육회,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9곳 선정

대도시형 5곳 연간 3억원, 중소도시형 4곳 연간 2억원 최대 3년간 지원

대한체육회는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9곳을 선정해 앞으로 최대 3년간 예산 및 행정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는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 경남 거제시, 제주도(이상 대도시형), 경기 의정부시, 경북 영주시, 경남 함안군, 전북 무주군(중소도시형)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9곳을 선정했다.

공공 스포츠클럽 심사는 ▲스포츠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재정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도시형 공공 스포츠클럽 선정 기관은 연간 3억 원씩, 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 지자체·지역체육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이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 선수와 체육 지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자체의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총 15개 시도에서 62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곳까지 총 71개의 스포츠클럽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의 확산을 위해 공공 스포츠클럽 추가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13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한체육회는 공공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 2018 아시아의 중심에서 펜싱 코리아

# FENCING KOREA를 외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펜싱 대표팀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당초 목표인 금메달 8개에 두 개 부족했지만 한국 펜싱은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강임을 알렸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금2, 은2, 동3, 메달순위 2위)을 거둔 한국 펜싱은 기세를 이어가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3회 연속 메달순위 우승을 달성하며,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에서도 펜싱 종목 메달순위 2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펜싱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중 8개를 휩쓸며 중국을 누르고는 ‘아시아 최강’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 에페 강영미(광주서구청), 여자 플뢰레 전희숙(서울시청)이 금빛 찌르기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한 박상영(울산광역시청)은 남자 에페 결승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오상욱(대전대)도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에페 정진선(화성시청), 여자 사브르 김지연(의산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펜싱 남자 플뢰레는 24년 만에 아시아경기대회 단체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펜싱 여자 사브르도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그러나 보니 현지에서 한국 선수들의 인기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현지인들의 사진촬영 요청이 쇄도했고, 선수들은 최고의 팬 서비스로 한국 펜싱의 품격을 보여줬다.

66

흰 옷 입은 검객이 가늘고 긴 금속 칼을 빠르게 휘두르는 펜싱. 경기 내내 프랑스어로 플레이가 진행되는 독특한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펜싱은 웬지 모르게 고상한 귀족의 스포츠인 것 같다. 또한 경기 진행이 너무 빨라 누가 득점을 한 건지,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사리 파악하기 힘든 종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펜싱에 대해 알아본다.

9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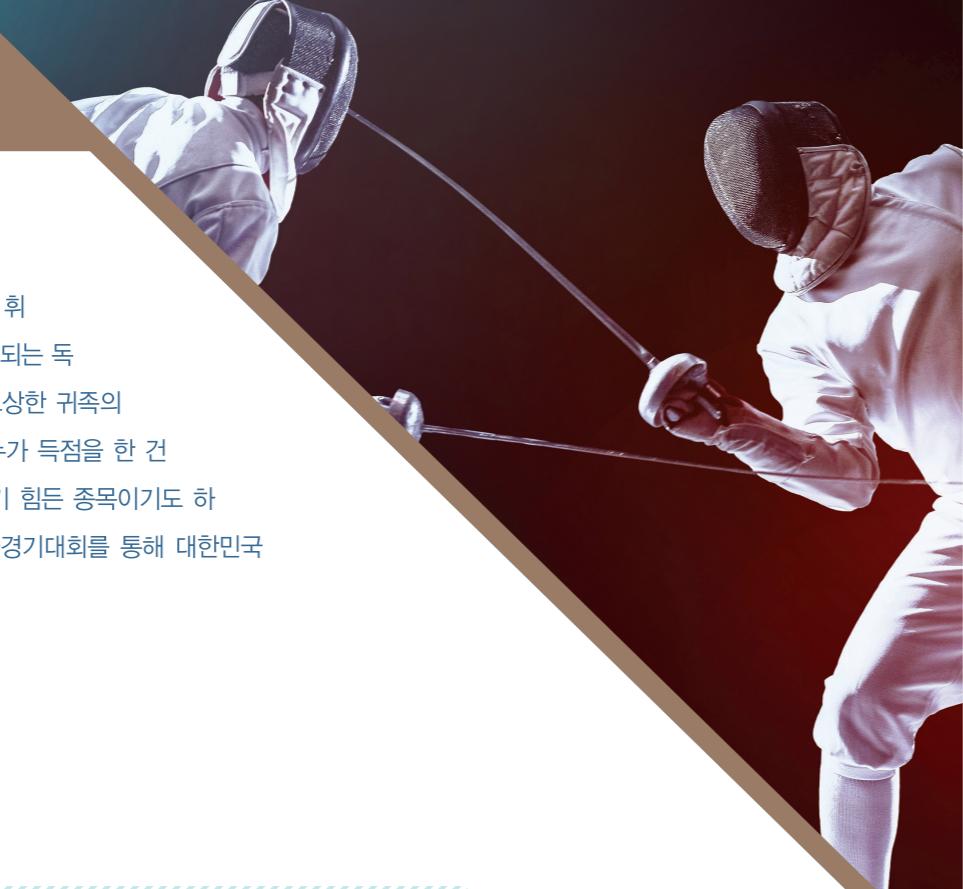
## 고대로부터 시작된 펜싱의 역사

검을 가지고 상대하는 두 경기자가 ‘찌르기’ 또는 ‘베기’ 등의 동작으로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 펜싱. 일찍이 무기로 사용해 오던 검의 술법으로 출발하여 고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 그리스도교시대에 전해졌으며, 기사도의 확립과 함께 저명한 검객들이 배출되었고, 고도의 검기(劍技)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검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이후 많은 검객이 나타나 여러 종류의 검술이 연구되었는데, 검법은 18세기 무렵에는 귀족계급의 교양의 일부로 여겨졌고, 전투적 검법으로부터 스포츠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검 끝에 솜방망이를 달아 안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완전히 스포츠화 하였으며 현대의 펜싱경기가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 한국 사람으로 펜싱을 가장 먼저 익힌 사람은 1935년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김창환 등으로, 그는 메이지대학 재학 시 주장선수로 활약했으며, 여러 시합에서 메이지대학을 우승으로 이끈 주전멤버였다. 그 후 일제의 외래운동에 대한 기피증 또는 증오심 등이 작용하여 펜싱을 금지시킴으로써 국내 보급의 기회를 잃었다.

광복 후인 1946년 4월, 김창환 등 4~5명이 모여 고려펜싱구락부를 조직하여 펜싱보급에 나섰지만 경제적 사정과 용구의 구입 등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1947년 11월 조선펜싱연맹이 조직됐고 이어 YMCA 체육부에 펜싱부를 두고 30명의 선수를 지도, 배출하였다.

같은 해 YMCA 창립 46주년 기념행사에서 펜싱시범대회를 가진 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56년 9월 KFA(Korea Fencing Association : 대한펜싱협회)로 재조직을 단행하였고, 1958년 2월에는 한국체육관에 펜싱부를 두고 펜싱의 본격적인 보급과 양성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02

## 검 종류에 따라 플뢰레(Fleuret)·에pee(Epee)·사브르(Sabre)

펜싱은 세 종류의 각각 다른 검과 규칙에 의해 시합이 거행된다. 플뢰레(Fleuret) 종목은 에pee(Epee) 종목과 함께 검의 끝으로 찌르는 것만을 유효로 하는 경기이다. 이 종목은 공격 동작이 빠른 편이며, 공격권과 방어권을 인정하는 공방이론의 법칙에 따라 승부를 판정하는 고전적인 종목이다.

에pee(Epee) 종목과 함께 검의 끝으로 찌르는 것만을 유효로 하는 경기이다. 이 종목은 공격 동작이 빠른 편이며, 공격권과 방어권을 인정하는 공방이론의 법칙에 따라 승부를 판정하는 고전적인 종목이다.

에pee 종목은 플뢰레보다 큰 가드가 달린 경직된 검을 사용한다. 이 종목에는 고대의 결투양식이 남아 있는데, 다른 종목과 같이 세분화된 규칙에 좌우되지 않으며, 찌르는 시간의 느리고 빠름에 따라 승점이나 패점을 얻게 되므로 상대편보다 먼저 찌르기만 하면 된다. 단, 1/25초 이내에 서로 동시에 찔렸을 경우는 양자 모두 승점을 얻게 된다.

사브르(Sabre) 종목은 베기 또는 찌르기를 유효로 하는 경기로서 손을 커버할 수 있는 가드가 달린 유연한 검을 사용한다.

03

##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지만 펜싱 경기가 워낙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찌르는지 맨눈으로는 빨리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심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펜싱에서는 비디오 판독도 꽤 빨리 도입됐다. 국제대회에서 이미 1990년대 후반 비디오 판독이

시작됐고, 현재는 한 선수가 경기당 두 번의 비디오 판독 요청 기회가 있다. 특히나 점은, 야구나 테니스와 달리 내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오심이 밝혀지고 판정이 번복되면 요청 기회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계속 판정이 시정된다면 두 번 이상도 쓸 수 있다. ‘눈 보다 빠른 손’의 플레이를 제대로 판정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초보  
펜싱팬을 위한  
**TIP**

각 종목별로 사용하는 검과 적용하는 규칙이 다르므로 경기방식과 기술도 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자세인 가르드, 검을 잡는 법, 공격과 수비, 이동동작 등 기본기는 공통된다. 프랑스에서 체계화된 경기인 만큼 경기와 관련된 용어는 모두 프랑스어이다.

**가르드(garde)** : 공격과 수비 그리고 역공격을 동시에 준비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자세를 말한다. 경기에서 주심이 선수에게 준비 자세를 명하는 구령을 '앙 가르드(en garde)'라고 하며, 주심이 이 구령을 하면 선수는 즉시 정해진 라인에 발뒤꿈치를 붙이고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데벨로프망(developpement)** : 팔을 펴고 팡트가 뒤따르는 동작

**데팡시브(defensive)** : 상대의 공격을 실패로 이끌기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동작

**르미즈(remise)** : 상대의 리포스트나 콩트르 리포스트에 대하여 행하는 역공격 행위

**리망(liement)** : 상대의 검을 높은 린느에서 잡아 대각선의 낮은 린느로 이끄는 동작

**린느(ligne)** : 선수의 검을 기준으로 나눈 과녁의 각 부분들로 4개의 린느, 곧 드수(dessus ; 오른쪽 윗부분)-드당(dedans ; 왼쪽 윗부분)의 높은 린느, 드오르(dehors ; 오른쪽 아랫부분)-드수(dessous ; 왼쪽 아랫부분)의 낮은 린느가 있다.

**마르세(marche)** : 가장 기본적인 이동 동작의 하나로, 앞발이 앞으로 나가고 뒷발이 뒤따라 나간다.

**바트망(battement)** : 아타크 오 페르의 일종으로, 공격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대의 칼을 치는 동작. 가장 유효하고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발레스트라(balestra)** : 공격 기본자세의 일종으로, 앞쪽으로 짧게 점프하면서 상대를 공격한 뒤 팡트로 연결되는 동작

**아타크(attaque)** : 팔을 뻗고 이어서 상대방의 유효면을 위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최초의 공격 행위

**아타크 오 페르(attaque au fer)** : 상대의 검에 대한 공격 동작

**쿠 두블(coup double)** : 두 선수가 동시에 찌른 이중(二重) 명중타를 말한다. 플로레와 사브르에서는 관습을 적용하여 동작의 우선권을 결정하며, 에페에서는 두 선수 모두 찔린 것으로 간주한다.

**앙가즈망(engagement)** : 자세를 취한 두 선수의 검과 검이 서로 가볍게 맞닿고 있는 상태

**앙블로프망(enveloppement)** : 상대의 검을 한 린느에서 잡아 손과 포엥트(pointe ; 칼끝)가 한 번 회전한 뒤에 같은 린느로 되돌아오는 동작

**오팡시브(offensive)** : 상대를 찌르기 위한 모든 공격 동작

**콩트르 리포스트(contre-riposte)** : 상대의 리포스트를 파라드한 선수가 행하는 공격 행동(재반격)

**콩트르 아타크(contre attaque)** : 상대의 공격을 이용해서 자신이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

**콩트르 파라드(contre parade)** : 자기의 검을 상대의 검에 맞대고, 원을 그리듯이 하여 상대의 검을 뿌리치는 방어 동작

**쿠페(coupe)** : 상대의 검 끝을 통과하여 반대쪽을 공격하는 동작

**크루아제(croise)** : 상대의 검을 높은 린느에서 잡아 같은 쪽의 낮은 린느로 이끄는 동작

**투셰(touche)** : 검의 날이나 포엥트로 상대를 찌르는 것

**파라드(parade)** : 자신의 검으로 공격해오는 상대의 검을 빗나가게 하는 방어 동작

**팡트(fente)** : 공격의 기본자세로, 앞발을 내딛고 뒷발과 뒤의 손을 충분히 뻗은 자세

문화 속으로 MOVIE

## 나의 펜싱 선생님(The Fencer, 2015)

감독 | 클라우스 출연 | 메르트 아반디, 우르술라 라타셉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전직 펜싱 선수의 감동 실화!

에스토니아 펜싱 선수 '엔델'은 독일군의 강제 징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이후 나치가 패망하면서 소련군들은 에스토니아에서 독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을 찾아 수감시킨다. 스탈린의 철권통치가 시작된 1953년, 펜싱도 그만두고 에스토니아의 작은 마을로 도망쳐온 엔델.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합살루'라는 시골의 중등학교에서 토요스포츠클럽으로 펜싱을 가르치게 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끌려가 전쟁 중 생사를 달리하며 엄마들 손에 자라고 있는 이곳 아이들에게 그는 펜싱을 가르쳐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줬다. 그러던 어느 날, 펜싱대회 참가 신청서가 날아오고 대회에 참가하면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 이게 되는데, 과연 그의 선택은? 실제로 엔델 넬리스(1925~1993)는 전설적인 에스토니아의 펜싱선수였고, 그가 만든 펜싱클럽은 아직도 운영 중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만들었던 펜싱클럽은 지금의 펜싱강국 에스토니아를 만든 배경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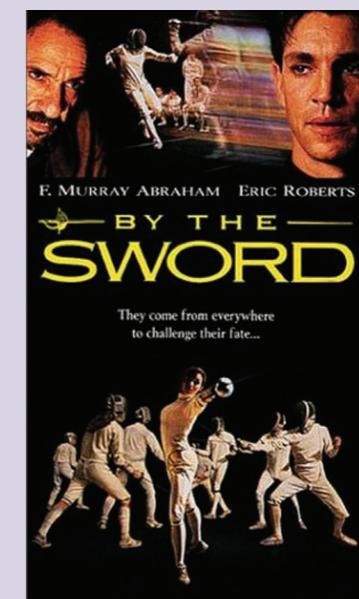
전설의 펜서와 에스토니아 아이들의 감동실화



## 더 베스트(By the sword, 1991)

감독 | 제레미 케이건 출연 | F. 머레이 에이브러햄, 에릭 로버츠

펜싱 전 세계 챔피언 맥시밀한 수바는 스승의 연인을 사랑한 나머지 결투 끝에 스승을 살해한 죄로 25년간을 감방에서 보낸다. 막 석방된 수바는 자신이 죽였던 스승의 아들인 빌라드가 관장으로 있는 펜싱 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린다. 빌라드는 처음에는 그를 청소부로 고용하지만 뛰어난 펜싱 실력을 알고는 사범으로 특채한다. 빌라드는 펜싱 아카데미의 마에스트로로 제자들에게 최고만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승부사. 오직 최고만을 목표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기교만을 가르친다. 따라서 기와 예와 인간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수바와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빌라드는 은밀히 수바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아버지의 수제자였음을 알게 된다. 수바는 자신도 짧었을 때 빌라드처럼 오직 승부에만 집착한 비정한 선수였고 모욕을 참지 못해 대결 끝에 스승을 살해했음을 밝힌다. 두 사람은 생명을 건 진검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시나리오는 물론, 극중의 펜싱을 아주 조화롭고 긴박감 넘치게 잘 표현해냈다는 찬사를 듣는 영화.



문화융성



#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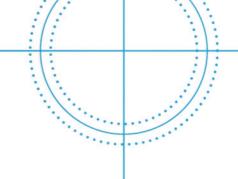
Let's walk together!



스포츠 7330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2018.11.3.(토) 09:00~

부산아시아드보조경기장 외 종목별경기장



|      |                                   |
|------|-----------------------------------|
| 개회식  | 11. 3.(토) 09:30~10:30 부산아시아드보조경기장 |
| 체육경기 | 11. 3.(토) 10:30~17:00 종목별 경기장     |
| 폐회식  | 11. 3.(토) 17:00~17:30 사직실내체육관     |
| 참가규모 | 16개 구·군 4,000여 명(선수 및 임원 등)       |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
| 주관   |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 개최종목 | 16종목                              |

| 구분       | 경기종목  |
|----------|---|
| 정식종목(15) | 검도, 게이트볼, 국악기공, 그라운드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족구, 줄넘기,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
| 시범종목(1)  | 당구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